

‘독신자의 날’ 특수…중국인 쇼핑족을 잡아라

11월11일 광군제…중국특수 부활?

유통업체, 중국 역직구족 노린 이벤트
뷰티업계도 ‘왕홍’ 앞세워 손님잡기
한·중 관계복원 분위기…매출 기대감

유통 “중국 광군제를 잡아라!” 유통업계에 떨어진 특별 미션이다. 11월11일 광군제는 ‘빛나는 막대기의 날’이라는 뜻으로, 1이 4개나 돼 ‘독신자의 날’, ‘싱글데이’로도 불린다. 대규모 할인판매로 유명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비슷하지만, 중국에서는 온라인에서만 쇼핑하는 게 차이점이다.

●중국인 ‘역직구족’을 노려라

국내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을 통한 중국인의 역직구(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를 노리고 있다. 당초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광군제 열기는 예년보다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최근 한·중 관계 복원 발표에 힘입어 국내 유통업계는 이번 광군제를 중국인 관광객 귀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이벤트와 혜택을 마련했다.

온라인쇼핑몰의 움직임이 부진한데 이베이크리아의 G마켓 글로벌샵은 12일까지 100여개 핫딜 상품과 할인쿠폰, 배송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메가G 할인 행사’를 연다. 또 SK플래닛 ‘글로벌 11번가’도 11일까지 11번가와 글로벌 11번가를 연동해 상품권을 확대했다.

백화점 역시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대응 중



중국 광군제(11월11일)를 앞두고 중국 쇼핑객을 잡기 위한 국내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애경은 최근 왕홍 초청 ‘애경뷰티데이’(왼쪽)를 개최했고, G마켓 글로벌샵의 ‘메가G 할인 행사’(오른쪽 위), 롯데백화점 엘롯데의 ‘온라인 쇼핑 위크’(오른쪽 아래) 등 업체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다.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몰 엘롯데는 15일까지 ‘온라인 쇼핑 위크’ 행사를 열고, 해외명품, 가전·리빙 인기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의 현대H몰은 역직구 사이트인 글로벌H를 강화해 적극 나섰다.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확대를 위해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해외 현지 홍보에도 나선다는 게 회사 측 소개다.

●면세점·뷰티업계의 반격

중국의 사드 보복에 피해가 컸던 면세점과 뷰티업계도 반격을 노린다.

면세점업계는 인터넛면세점을 통해 대체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롯데면세점 중문 인터넛면세점은 중국인 신규 회원에 최대 21달러의

적립금 지원 이벤트를, 신세계인터넛면세점은 11일 구매 소비자 및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금괴를 모아라’를, 두타인터넛면세점 중문몰은 1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11분부터 선착순 1111명에게 쇼핑 적립금 11만1111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 등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 전 인터넛면세점을 통해 미리 쇼핑하기에 인터넛면세점 매출 추이를 보면 향후 중국인 관광객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며 “광군제가 중국인 관광객 복귀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뷰티업계에서는 ‘왕홍’을 앞세운 광군제 특수 잡기가 한창이다. 왕홍은 ‘온라인상 유명인사’를 뜻하는 ‘왕뤄홍런’의 줄임말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동영상 사이트에서 주로 활동한다.



사진제공 1 애경·이베이크리아·롯데백화점

일종의 파워블로거 격이다. 마스크팩 업체 SN P화장품이 중국 뷰티 콘텐츠 플랫폼에서 뷰티 왕홍의 생방송을 진행하는 게 그 예로, 최근 애경이 경기도 수원 소재 AK타운에서 왕홍 초청 ‘애경뷰티데이’를 열어 중국 시장에 어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유통업체들이 예년처럼 광군제 특수를 누리기에만 시가상조라는 예측도 있다.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온라인 역직구족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광군제의 매출 여부는 미지수지만 향후 매출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분위기”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벤츠·폭스바겐·BMW·볼보 52개 차종 5만6084대 리콜

6개 업체 창유리·브레이크 결함 등 발견
아우디폭스바겐 6억대 과징금 부과 받아

벤츠·폭스바겐, BMW·기아·토요타·볼보 등 52개 차종 5만6084대가 리콜되고, 폭스바겐과 BMW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만6084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GLC 220d 4매트 쿠파에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아자동차에서 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폭발압력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에 약하게 제작됐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비엠더블유코리아(BMW)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폭스바겐 티구안 및 O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차량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6억1900만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BMW)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X5 x드라이브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7인 이상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과징금 약 1100만원을 부과기로 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KT&G 전자담배 릴 ‘아이코스·글로와 한판 붙는다!’

20일, 차세대 전자담배 ‘릴’ 공식 출시

소문이 무성하던 KT&G의 차세대 전자담배 ‘릴(lil·사진)’이 마침내 배일을 벗었다. 국내 1위 담배업체 KT&G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회를 열고 릴을 20일 서울지역에서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KT&G가 릴을 출시함으로써 국내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릴과 기존제품인 ‘아이코스(한국필립모리스)’, ‘글로(BAT코리아)’가 삼각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이른바 ‘전자담배 삼국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릴의 기능상 가장 큰 장점은 연속 사용. 한번 충전으로 20개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크기와 무게, 디자인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느껴진다. 손 안에 꼭 잡히는 콤팩트한 크기와 9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높였다. 색상은 ‘크림 화이트’와 ‘사파이어 블루’의 2종으로 출시된다. 릴의 권장 소비자가는 9만5000원이지만 릴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인 인증 후 회원 가입시 할인코드를 발급 받으면 8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릴의 전용담배인 ‘핏(Fit)’은 ‘핏 체인지’와 ‘핏 체인지업’ 2종이다. 가격은 각각 4300원. 릴은 13~16일 서울지역 GS25 편의점에서 예약접수를 진행한 후 20일부터 핏과 함께 정식 발매된다. 앞서 13일부터는 서울지역 GS25 일부 판매점에서 한정 수량으로 시범판매를 할 예정이다.

KT&G는 출시를 기념해 릴 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5만명에게 전용케이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등록하는 선착순 1만명에게 릴 전용 충전거치대를 제공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한국e스포츠협회 압수수색

2015년 받은 후원금 관련자 조사
협회 “불법·편법 관여한 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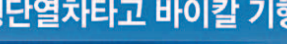
한국e스포츠협회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7일 서울 상암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협회장을 역임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의원시절 보좌관 윤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윤모씨와 함께 관련자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재승인을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르노삼성, 오토솔루션 겨울 감사이벤트

르노삼성자동차가 12월20일까지 ‘오토솔루션 겨울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안전한 겨울철 운행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13가지 일반 점검은 물론 4가지 세이프티 항목 점검 등의 서비스가 입고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프리미엄 엔진오일을 구매할 경우 부품 25% 할인 혹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하며,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 교체 시 부품 25%할인 또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특히, 프리미엄 엔진오일과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를 동시 교환할 경우, 해당 부품 최대 30% 할인 혹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언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알촌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한 눈으로 보는 경제

7일

코스피지수	2545.44	↓	-3.97
코스닥지수	701.14	↓	-2.65
日 닛케이 지수	2만2937.60	↑	+389.25
中 상하이 종합	3413.58	↑	+25.40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3	↓	-0.02
환율 (원·달러)	1113.00	↓	-1.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741.41	↑	+198.82

오늘의 얼굴

‘와병’ 이진희 회장의 병실생활



삼성서울병원 최고층 20층의 오른쪽 끝 병실을 외부에서 촬영해 방송했다. 영상 속에는 이진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있다. 해당 방송을 내보내며 “이 회장의 최근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다”며, “병실에서 일본 개봉 영화를 보는 등, 그동안 나왔었던 사망설 등의 루머는 모두 거짓이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3년째 삼성서울병원 VIP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병실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 회장이 병실 TV를 통해 본 영상도 화제다. 지난 5월 국내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목소리의 형태’로 추정된다. 이 애니메이션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녀 ‘쇼코’와 그녀를 고향했던 소녀 ‘쇼야’가 고등학교생이 되어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일본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2위에 랭크됐던 화제작이다.

비즈 TALK TALK

●“중국과의 관계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하겠다” (고령권 기획재정부 1차관, 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개선될 것이라며)

데이터 경제

